

# 나머지 47%를 찾아라



최주선/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전무이사

디지털 가전, 김치냉장고 등 새로운 가전품의 소비 증가, 국내산 및 수입 농수산물의 규격 포장화, 통신 판매 증대로 인한 신선 농림수축산물 등의 직송 서비스 확대 등으로 스티로폴 포장재의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 문제는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 여건 즉 매립지와 소각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포장재를 재활용할 것이냐 혹은 포장재의 사용을 줄일 것이냐 중에서 해결 방안을 택할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스티로폴 포장재의 재활용률은 수년간 지속적

으로 성장하여 2001년도 말 현재 53%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활용 사업의 성공 요인은 정부의 적절한 재활용 시책, 앞선 재활용 기술, 그리고 최종 재활용 제품의 성공적인 수요 창출 그리고 당 협회 재활용 시스템의 적절한 조정 역할 등 이라고 볼 수 있다. 2001년에는 재활용 원료로 그림액자 등 제품을 만들어 연간 2,5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스티로폴 포장재의 회수 재활용 사업에서 아직도 몇 가지 장애 요소들이 남아있다. 일부 지역이지만 아직도 스티로폴 포장재가 분리 수거 대상 품목인 것을 모르고 종량제 봉투에 함들게 부셔서 넣고 있는 시민들, 소중한 자원으로 보다는 쓰레기로 마구 버리는 무감각한 일부 매출자, 재활용이 늘어나면 수입이 감소한다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업체들의 불평, 구조 조정으로 계속 감소되는 지자체 재활용 담당 인력, 재활용 증대로 인한 매립과 소각 비용의 감소까지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품목임에도 사적 수익성이 없다는 논리를 펴며 재활용 사업에 무관심한 일부 자치단체장, 재활용 촉진을 위한 비용 부담에는 인색하면서 높은 재활용 실적으로 얻어지는 간접적인 이익은 챙기려는 일부 관련 생산자 등 여러 문제점들이 큰돈 못 벌지만 스티로폴 포장재를 재활용하여 깨끗한 국토 환경도 보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재활용 업체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

리우 세계환경회의의 개최 후 10년이 되는 2002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재활용률이 50%를 초과했다는 것에 안주하기 대신에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버려지는 나머지 47%의 미재활용분을 적절히 모아서 재활용 흐름에 넣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조금만 더 상호 협력하면 즉 시민들은 깨끗하게 분리 배출하고, 지자체는 수거, 감용하여 잘 모아놓고, 생산자는 전량 인수하여 재활용 원료로 이용되도록 책임의 분담을 약속하면 된다. 다행스럽게도 스티로폴 포장재를 원료로 한 사진액자 등 합성 목재의 생산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상황에서 최종 제품의 수요처 확보는 100% 보장되고 있다. 우리 업계가 재활용 제품으로 그림액자 세계 시장에서 매출액 1위를 달성하는 날도 머지않을 것이다. ☺